

## 【서지사항】

**【서류명】** 심판청구서  
**【청구인】**  
**【명칭】** 엘지전자 주식회사  
**【출원인코드】** 1-2002-012840-3  
**【대리인】**  
**【성명】** 박장원  
**【대리인코드】** 9-1998-000202-3  
**【포괄위임등록번호】** 2007-036219-0  
**【사건의 표시】**  
**【심판의 종류】** 정정심판  
**【특허(등록)번호】** 10-0608735-00-00  
**【청구의 취지】** 별지와 같음  
**【청구의 이유】** 별지와 같음  
**【취지】**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.

대리인 박장원

(서명 또는 인)

## 【수수료】

**【기본심판청구료】** 3 개 150,000 원  
**【가산심판청구료】** 45,000 원  
**【합계】** 195,000 원  
**【첨부서류】** 1.기타첨부서류[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]\_1통 2.정정명세서 및 도면\_1통

【별지내역】

【청구의 취지】

"특허 제608735호의 명세서를 첨부된 정정 명세서의 기재 내용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용한다."라는 심결을 구합니다.

【청구의 이유】

본 특허권자는 이견 특허 제608735호에 대한 정정심판의 청구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.

1. 정정심판의 청구 이유

이견 특허 제608735호는 2002년 07월 09일자로 특허출원 제2002-39791호로 출원되고 2006년 07월 27일자로 등록되어 그 권리가 적법하게 존속되고 있습니다.

본 특허권자는 이견 특허 제608735호의 불분명한 기재를 명확하고, 특허 요지와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,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자 합니다.

[정정된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]

(정정 전)

그러나, (b), (c)와 같이 좌/우로 90° 회전시킬 경우에는, 화면 비율이 A:B에서 C:D로 바뀌게 된다.

(정정 후)

그러나, (b), (c)와 같이 좌/우로 90° 회전시킬 경우에는, 화면 비율이 A:B에서 D:C로 바뀌게 된다.

(정정 전)

즉, 사용자가 우 방향 버튼(N2)을 입력하면(S102), 화면을 우측으로 90° 회전시키고, 화면 비율은 상술한 바와 같이 C:D로 변환하여 표시하고,

(정정 후)

즉, 사용자가 우 방향 버튼(N2)을 입력하면(S102), 화면을 우측으로 90° 회전시키고, 화면 비율은 상술한 바와 같이 D:C로 변환하여 표시하고,

(정정 전)

다음, 사용자가 좌 방향 버튼(N4)을 입력하면(S104), 화면을 좌측으로 90° 회전시키고, 화면 비율은 상술한 바와 같이 C:D로 변환하여 표시하고,

(정정 후)

다음, 사용자가 좌 방향 버튼(N4)을 입력하면(S104), 화면을 좌측으로 90° 회전시키고, 화면 비율은 상술한 바와 같이 D:C로 변환하여 표시하고,

## 2. 정정의 적법성

(1) 전술한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의 정정은, 특허법 제47조제3항의 "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"에 해당됩니다. 구체적으로는, 단락<18>에는 "즉,  $C=A$ ,  $D=A^2/B$ 의 비율로 바뀌게 되고, 그 하단에 소정 비율의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된다."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, 상기  $C=A$ ,  $D=A^2/B$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율이  $A:B=D:C$ 로 바뀌어야 합니다( $BD=AC \rightarrow D=A^2/B$ ).

그런데, 등록특허의 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에 따른 보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상기 사항이 올바르게 보정되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, 상기 발명의 구성의 단락<17>, <21>, <23>에 기재된 화면비율  $C:D$ 를, 상기 식  $C=A$ ,  $D=A^2/B$ 식이 올바르게 성립할 수 있도록  $D:C$ 로 정정하여 잘못된 기재를 정정코자하는 것입니다.

(2) 또한, 전술한 발명의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의 정정은, 특허법 제136조 제3항의 "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청구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"라는 근거로 볼 때도 명세서의 변경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, 변경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그러므로, 이견 정정심판의 청구 취지와 같은 심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.